

# 북

## Books

# 몸으로 승부 겨루는 '백수'의 향연

## 임꺽정

### 고미숙 지음

활의 달인 이봉하, 맷가  
지창의 달인 박유복, 돌팔  
매의 달인 배돌석, 죽지법  
과 장기의 달인 황진왕동  
이, 사기의 달인 서립, 벽초  
홍명희의 '임꺽정'에는 수  
많은 달인이 나온다. 하지  
만 이들은 하나같이 놀고먹는 '마이너'들이다.

고전평론가 고미숙의 신간 '임꺽정-길 위에서 펼쳐지는 마이너리그의 향연'은 이들의 삶을 통해 오늘날 청년실업문제와 비정규직의 해결책을 엿보는 흥미로운 내용을 담았다.

흔히 '임꺽정'을 '민중과 저항, 역사소설, 리얼리즘'이라는 코드로 읽어내지만 그 안에는 다양 한 인간의 모습이 담겨있다.

저자는 방대한 대하역사소설인 '임꺽정'을 한  
마디로 '백수들의 향연'·'몸으로 승부를 겨루는  
달인들의 향연'으로 표현한다.

소설 속 인물들은 능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  
고, 장사를 하자니 밑천도 없다.

혈연적 유대도 혈연없다. 경작이는 그나마 가  
족이 있지만 유복이는 유복자이며, 봉하이는 할  
머니 밑에서 자랐다. 괜오주는 가출한 뒤 임노동  
(아르바이트)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, 길마봉  
이는 소급장수, 배돌석이는 떠돌이 톱편이다.

이들은 특정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 
'마이너'들이다.

하지만 이들은 세상의 차별과 모순에 대한 을  
분이 강하고, 부락공동체의 경제 구조를 터득한  
다. 이들의 거점인 청석골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  
이며, '자유의 새로운 공간'이다.

모든 공부도 길 위에서 이뤄진다. 공부의 목표  
가 성공에 있는 현대와는 달리, 소설 속 인물들은  
자기만의 수련을 통해 각자가 달인이 된다. 일종  
의 대안교육을 받은 셈이다.

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  
력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. 구성원들이 각자  
의 능력을 발휘해 집을 짓고, 힘을 발휘해 자신들  
의 삶의 근거지를 만들어낸다.

이 같은 '능력을 간의 순환'을 통해 기존의 관습  
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은  
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.

저자는 "인생과 우정이 하나로 오버랩되는 이  
특별한 기술을 체득할 수 있다면, 고독과 소외라는  
현대적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  
년실업의 경제적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"고 주장한다.

청석골은 또한 '움직이는 요새'이다. 청석골은  
산중에 깊숙한 곳에 있지만 결코 닫혀있지 않다. 인  
근 마을과 서울 한복판까지 그 세력이 연결돼 있  
다. 또 공격을 받으면 마을을 짖기기도 하는 청석  
골은 일종의 유목민의 텐트였다.

가치와 방식에 얹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 
자아를 찾아가는 노마디즘 (nomadism)을 실천  
한 것이다.



▲어린왕자의 귀환-신자유주의 우주에서 살아  
나는 법=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들에 휘  
둘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비  
꼰 시사·풍자 만화집이다. 2002년 부시 정부의  
이라크 침공을 비판하며 중세유럽과 이슬람역사  
를 심도있게 다룬 '십자군 이야기'의 작가 김태권  
씨가 어린왕자의 이야기 형식을 패러디해 신자  
유주의의 음모를 파헤쳤다.

새책

〈돌베개·1만2천원〉



▲외국어를 공부하는 시간=문단에선 보기 드문 외국어로 출신  
작가 오현종씨의 자전적 성장소설. 서울 변두리 여자중학교에 수석  
으로 입학했다는 이유로 3년 내내 따돌림을 당하던 주인공 김은호  
가 같은 계단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피하기 위해 한 외국어고에 입  
학하면서 겪는 학교생활을 유머스한 터치로 그렸다.

〈문화동네·1만원〉



▲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= 파  
리 정치대학 브뤼노 라루르 교수의 1991년 저작  
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번역 출간됐다. 제목 그대  
로 근대인의 실재를 부인하면서 근대주의와 탈  
근대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한 책이다. 과학과 기  
술, 정치와 정부, 언어와 의미론에 대한 완전히  
새로운 시각에서 '비근대주의'의 정치생태학을

〈갈무리·2만5천원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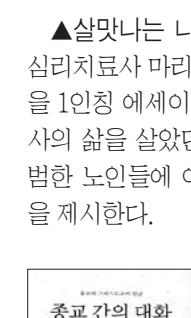
서 현대 예술계의 어두운一面면도 파헤치고 있다.

〈랜덤ハウス·1만2천원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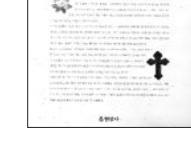
▲내추럴 트래블러-33일, 기차 타고 파리에서  
인천까지=여행광인 최범석씨가 파리에서 기차  
를 타고 유럽을 지나 러시아, 몽골, 중국을 거쳐  
한국으로 오기까지의 여행과 그 여행을 통한 사색  
을 기록한 책이다. 기차와 도시에서 만난 많은 사  
람과의 대화를 끔끔히 기록한 저자는 그들과의 만  
남에서 인생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.

〈책세상·1만4천500원〉



▲살맛나는 나이=“사랑하는 사람들은 늙지 않는다”고 말하는  
심리치료사 마리 드 엔젤리 이를답고 풍요롭게 나이 들어가는 비법  
을 1인칭 에세이로 편안하게 풀어 냈다. 100살 현역으로 사랑과 봉  
사의 삶을 살았던 엠마뉘엘 수녀에서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의 평  
범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사랑받는 행복한 노년의 ‘심리적 모델’  
을 제시한다.

〈학고재·1만2천원〉



▲종교 간의 대화-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  
=서로 다른 사유와 언어로 불교와 그리스도교  
를 연구했으나 저변에는 공통된 진리를 있으리  
라고 믿어온 신학자와 불교학자들이 지난 2003  
년부터 4년간 계속했던 종교 간의 대화를 가려  
劬었다. 기독교인으로서 불교를 연구하는 비교  
종교학자인 길희성 교수, 이찬수 종교문화연구  
원장 등 학자 13명의 논문을 실었다.

〈현암사·1만8천원〉



## 생각

### 이여령 지음



# 마음 속에 잠들어 있는 '생각'을 꺼내라

## 이여령 지음

호기심과 창조정신을 바탕  
으로 학문과 실용 분야를 두  
루 넘나들며 접할 활동을 해  
온 이여령(75) 전 문화부 장  
관이 어두운 지하 갤러리에서 원  
석을 캐듯 깊숙이 숨어 있는  
생각을 끄집어내는 비결

이여령창조학교라는 부제가 붙은 '생각'은 현대  
인들이 마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밤상의 전환에 실  
폐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 
13가지 열쇠를 소개한다.

‘이여령창조학교’라는 부제가 붙은 '생각'은 현대  
인들이 마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밤상의 전환에 실  
폐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 
13가지 열쇠를 소개한다.

창조적 사고의 사례도 제시한다. 불지 않는 풀, 녹  
음이 암 되는 녹음기에서 3M은 '포스트잇'을 만들었  
고, 소니는 리코더와 플레이어가 같이 되는 '워크  
맨'을 탄생시켰으며 월트 디즈니는 인간에게 해만  
끼칠 뿐인 쥐에서 '미키마우스'를 창조해내 어마어  
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.

책은 또 이를 한국적 상황과 연결, '흙과 디지털이  
하나되는 세상' '당신은 정말 거북선을 아는가' '국

물문화의 포스트모던적 발상' 등 구체적이고 시각적  
인 현상들을 들어가며 '창조적으로 생각하기'의 틀  
을 제시한다.

저자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 
여겨며 공부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묻는다. 황  
폐하고 폭력적인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  
어느 때보다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 
역설한다.

우리는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사물과  
현상들에서도 새로운 해석과 깨달음이 있음을 알려  
주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야 나날이 충만  
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 
일깨워준다. 생각 바꾸기 교과서이자 사고력 향상의  
길잡이로 삶을 만하다. 〈생각의 나무·1만2천원〉

/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.co.kr

13가지 열쇠는 책을 캐내듯 마음 깊숙이 숨어 있는 '생각'을 꺼내라

